

# 業界소식

## 韓·英 전자식 타자기 특허 출원

□ 경방機械工業(株) □

경방機械工業은 2벌·4벌,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타자할 수 있는 전자식 타자기인 ET-2000HC를 개발, 특허 출원중이다.

同社가 개발한 이 전자식 타자기는 마이크로 컴퓨터를 내장, 스피디한 타이핑을 할 수 있고 원터치로 한글 또는 영문 휠(Wheel) 교환이 가능하며 타자된 문자를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어 자동으로 오타를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휴대용 無線電話 개발

□ 廣林電子工業(株) □

廣林電子工業은 송·수신이 동시에 가능한 휴대용 무선전화 송·수신기를 개발했다.

이 워크폰은 송·수화기가 헤드폰형으로 개발되어 간단히 휴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수신기 자체는 요대에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휴대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운수·건설·항만관리·호텔 등 사업용으로 폭넓게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 콘센트형 누전차단기 UL규격 획득

□ 金星計電(株)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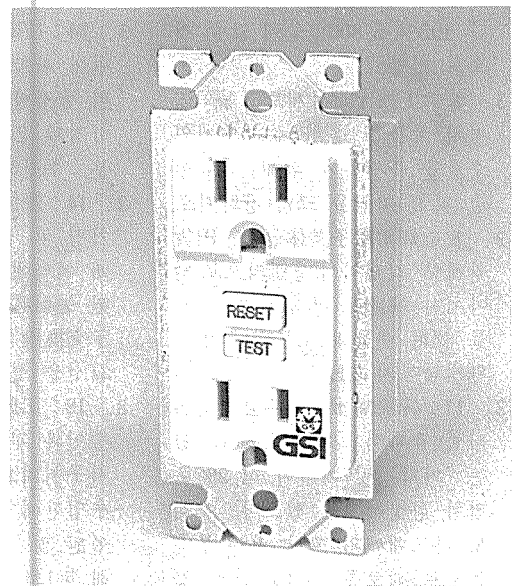
金星計電(代表: 崔根善)이 최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콘센트형 漏電遮斷器인 GFCI(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의 UL 규격을 지난 4월 4일자로 획득, 대미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이번에 금성계전이 획득한 UL 규격은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거의 선행 필수적인 구비 규격으로서, 同社は '85년부터 1년여에 걸쳐 사

전준비 및 안전도 검사를 비롯한 총 21가지의 각종 엄격한 시험을 거쳐 동제품의 NEGFI-15, 20의 2기종에 대해 동 규격을 획득케 된 것이다.

그런데 GFCI란 콘센트(영어명: Receptacle)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가정내 기존의 콘센트 위치에 설치하여, 누전시 인체감전 방지 및 가전제품의 손상방지까지도 기할 수 있는 초정밀기기로써, 미세전류(6mA)만 누전이 되어도 가정전체의 전원을 차단치 않고 해당부분만 차단케 되어, 국부적인 고장탐지후 누전상태를 원상태로 환원시켜 재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전기사용 안전장치이다.

同社は 이번에 GFCI에 대한 UL 규격 획득을 계기로 미국시장에 년 50만대, 약 500만불 상당액을 수출할 계획이며, 국내시장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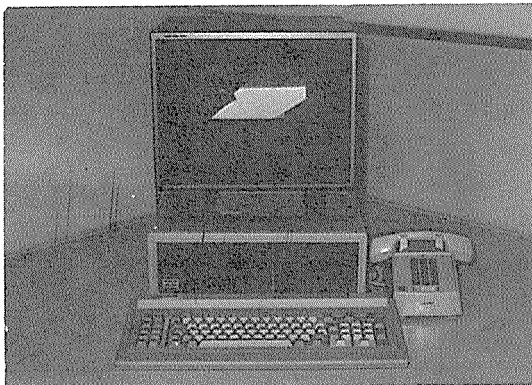


금성계전이 UL 규격을 획득한 콘센트형 누전차단기 (GFCI)

## 퍼스컴을 이용한 비디오텍스 수신용 단말기 개발 金星半導体(株)

金星半導体(대표: 具滋斗)는 업무용 퍼스널 컴퓨터 하나로 PC 기능과 비디오텍스 단말기능까지 함께 갖춘 비디오텍스 수신용 단말기를 개발했다. 이로써 PC사용자들이 별도의 단말기 없이도 비디오텍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복합기능이 가능한 PC 단말기를 자체 개발한 同社는 이 시스템을 지난 15일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1층에 설치, 21일부터 26일까지 이 호텔에서 열리는 ANOC(세계올림픽연합회)총회 참가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퍼스컴 하나로 PC기능과 비디오텍스 단말기기능의 동시 수행을 가능케한 GSS PC24

同社에 따르면 이 단말기는 同社의 업무용 퍼스널컴퓨터인 GSS PC-24에 VDA(Video Display Adaptor)보드를 내장시켜 개발한 것이다. '86, '88 양 대회 종합전산정보망 공식후원업체로 지정된 同社는 이번 ANOC 총회 참가자들에게 이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우리나라가 양 대회의 정보망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비디오텍스 수신용 단말기로는 비디오텍스 전용형, 가정용 TV에 디코더(정보해독장치)를 연결하는 어답터형, 디코더가 TV에 내장된 형, 퍼스널컴퓨터형 등이 있다.

이중 현재 국내에는 비디오텍스 전용형만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 同社가 발표한 것

은 사용자가 이미 갖고있는 퍼스널컴퓨터(GSS PC-24)를 이용한 것이다.

同社는 현재 수신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이 시스템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정보의 입력이 가능한 정보제공자용(Information Provider) 터미널도 올해 안으로 개발, ISDN(종합정보통신망)의 중핵인 비디오텍스의 보급에 주력하여 고도 정보화사회 구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數値제어시스템 개발 (株) 金星社

金星社는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던 NC 자동프로그래밍 시스템을 개발, 가공품질 향상과 원가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되었고 국산화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NC공작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16비트 마이티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 컴퓨터 키보드로 가공형상을 입력 출력하면서 그래픽 화면이나 플로터로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同社는 韓國情報産業協會와 공동으로 지난 4월 10, 11 양일간 서울 永東의 半島 유스호스텔에서 제4세대 SW Tool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선 컴퓨터에 대한 기초지식만을 갖추면 구체적인 프로그램 작성법을 몰라도 자기 업무에 맞는 SW개발이 가능하도록 업무 유형별로 패키지화하는 내용 등을 다루었다.

## 月 컬러TV생산 10만대 돌파 大宇電子(株)

大宇電子는 지난 3월 컬러TV생산량 10만 8,000대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출범 당시보다는 700%가 각각 늘었다.

컬러TV 생산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까닭은 울더어 수출시장 여건이 좋아진데다 円貨 강세로 수출 주문이 밀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同社의 淸美 컬러TV 수출은 지난 1/4분기 중 20

만대를 넘겨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나 늘었다.

## 고속 프린터 본격 생산

□ 東洋시스템産業(株) □

東洋시스템産業은 한글·한자의 경우 225CPS, 영문은 450CPS까지 고속으로 인쇄할 수 있는 9450 프린터를 국산화, 공급에 착수했다.

인쇄 속도면에서 기존 프린터보다 2배 이상 빠른 이 프린터는 24핀의 다이아몬드 배열 방식 헤드를 채용, 헤드의 수명을 2배 이상 향상시켰으며 한글·한자의 다양한 글자 크기와 상하좌우 확대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프린터는 자체 한글·한자를 내장하고 있어 자료처리용은 물론 컴퓨터에 부착, 사무용으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 國內 最初로 Full Page Display 브라운관 開發

□ 三星電管(株) □

三星電管은 컴퓨터 단말기의 核心部品으로 그동안 技術 부족에 의해 全量 輸入에 의존해온 高解像度 Full Page Display 브라운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開發에 성공, 年間 500萬弗의 輸入代替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지난해 1월 總 1億 8,000萬원의 研究開發費를 투입, 本製品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 3월 本제품 開發에 성공한 것인데 금년 6월부터 본격 생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Full Page Display브라운관은 17" Monochrome Display 브라운관으로 電子빔 휘점(SPOT)크기가 0.2mm되는 高解像度 브라운관으로 현재 世界的으로 주목을 이루고 있는 0.3mm에 비해 해상도가 뛰어나다.

Full Page Display브라운관과 종래의 Display 브라운관의 차이점은 종래의 브라운관은 한 화면에 4,000字 정도의 文字를 수록할 수 없는데 비해 Full Page 브라운관은 무려 1만 2,000자를 수록할 수 있고 브라운관을 수직방향으로 세워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한 화면의 情報量이 A4 用紙 Size에 한번에

Print할 수 있는 利点を 갖추고 있어 先進國에서는 Word processor, 文書화일 시스템 컴퓨터, CAD/CAM의 그래픽 컴퓨터용 Display 브라운관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 도미니카에 TV技術 수출

□ 三星電子(株) □

三星電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코리피오社와 年産 10만대 규모의 컬러TV 제조 설비 및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 규모는 컨베이어 등 150만불 상당의 제조설비와 연간 500만불의 TV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도미니카의 경우 지난해부터 컬러TV 보급이 시작되는 등 시장개척 여지가 많고 경제 부흥을 위해 公營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자국 개발 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同社는 이번 도미니카 진출을 계기로 이 지역 시장 개척에 주력, 컬러TV·오디오 등의 家電製品 및 제조기술 수출을 증대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 형광등 안정기 개발

□ (株) 瑞豐電子 □

瑞豐電子는 자체 기술로 조절전형 전자식 형광등 안정기인 「하이라이트」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내부에 IC 회로를 채택, 재래식 안정기와는 달리 자체 전력 소비가 거의 없어 기존 제품보다 전기를 30% 이상 절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절전에 따른 전기료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40W형광등 한등을 하루 6시간 사용할 경우 「하이라이트」안정기를 내장한 형광등은 재래식 안정기를 부착한 형광등보다 연간 5,610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쇼크 스타터를 사용하지 않아 순간 점등이 가능한 데다 50V의 낮은 전압에서도 점등이 된다.

---

## MINX시스템 國産化 추진

(株) 유니온시스템

유니온시스템은 美國 데이터포인트社와 협력, 화상·음성·데이터 통합처리 시스템인 MINX를 국내에서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

同社は 美國 데이터포인트社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MINX 시스템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었는데 이 MINX 시스템은 화상·음성·데이터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LAN 시스템이다.

---

## 日社와 OEM 생산·기술 제휴

코스모스電子(株)

코스모스電子는 日本에서 특수 지역으로 나가는 VTR, 냉장고, 세탁기, 컬러TV, 흑백TV, 전화기 등 가전제품을 OEM으로 생산키 위해 日本의 세계적인 4~5개 가전 메이커들과 OEM 생산 계약과 기술제휴 문제 등을 협의하여 곧 매듭지을 계획이다.

지난 83년 11월 설립된 同社は 그 동안 흑백TV·컬러TV·전화자동응답기·위성방송수신장치 등을 생산, 전량을 美國, 캐나다, 中南美 등지에 수출해 왔으며 그 규모가 지난 84년 1,800만불, 85년엔 2,400만불에 이르렀다.

---

## 데이터 多重化裝置 導入 공급

(株) 콤텍시스템

콤텍시스템은 美國 심플렉스社로부터 특유한 데이터 압축 전송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다중화장치를 도입해 회선희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다중화장치 DATAMIZER는 데이터를 압축, 전송하는 방식을 채택, 사용 빈도가 많은 문자 또는 숫자를 압축해서 코드를 변형시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일반 전화회선에서 최고 9600bps까지만 전송이 가능하던 것을 이 다중화장치를 사용해 19200bps 속도로 변형할 수 있게 되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데 활용이 기대되고 있

다.

압축 전송 기능은 최소한 2.5배 이상을 압축시킬 수 있어 데이터 전송도 신속하게 보낼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여러 회선을 이용하던 것을 한개 회선으로 줄임으로써 회선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

## 스카치 필라멘트 테이프 開發

韓國케이칼工業

동사는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중요 부품의 고정용 및 전기 절전용, 중포장의 밴딩용 등으로 널리 쓰이는 스카치 필라멘트 테이프와 유리섬유 테이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 판매에 나서고 있다.

연간 120~150만불 상당을 수입에 의존해 오던 이 스카치 필라멘트 테이프는 국가 공인기관과 가전 메이커들의 자체 검사에도 합격한 것인데, 동사(사장 박 정오)는 수입 업자들의 끈질긴 방해와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수요 업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고전을 하고 있어 전자업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주소: 부산시 북구 삼락동 378-10)

---

## 住所 및 變更事項 안내

히로세 코리아(株), 大德産業(株)

- 변경일: 1986년 1월 1일
- 변경후 주소: 경기도 안산시 옥내동 475
- 변경후 전화번호: 864-5694

알렉스 컴퓨터(주)

- 변경일: 1986년 3월 3일
- 변경후 상호: 알렉스 컴퓨터(주)
- 변경전 상호: 알렉스 컴퓨터 코퍼레이션
- 변경후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3 (영창빌딩 7층)
- 변경후 전화번호: 549-5091/5

영화전자전기

- 변경일: 1986년 4월 14일
- 변경후 주소: 경기도 부천시 내동 110-1, 2호

□ 한국전자경보(주)

- 변경일 : 1986년 4월 16일
- 변경후 주소 : 서울 종로구 적선동 29

□ 신성전자공업사

- 변경일 : 1986년 4월 17일
- 변경후 주소 : 경북 구미시 황상동 502-3

□ 多星企業(株)

- 변경일 : 1986년 4월 18일
- 변경후 상호 : 多星企業(株)
- 변경전 상호 : 多星電子
- 변경후 대표자 : 李 相 應

□ (주) 해룡실리콘

- 변경일 : 1986년 4월 19일
- 변경후 주소 : 경기도 김포읍 운양리 624-8

〈會員社 서클 순례 ④〉

亞南産業(株)의 「아남산악회」

아남산악회장 남 창 인

우리 아남산악회가 창립된지도 벌써 10여년이 되었다.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여 아남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산악회도 발전을 거듭하여 이젠 어엿한 직장 서클로서의 진면모를 지닌 훌륭한 단체로 성장했다.

소인원으로서의 어려움 속에서 일하면서, 이끌어 가야 할 직장 서클이기에 남달리 어려움도 많았지만 고진감래라 하던가 어려움 속에 편 우리들이기에 우린 더욱 단결할 수 있었고 이날이 오기까지의 어려움은 우리의 인내와 협동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1974년 7월, 현재 생산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수 차장께서 뜻한 바가 있어 본산악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지내고 그후로 최중혁, 천익엽, 윤기열 사우들께서 고전분투와 산악반 여러분들의 열성으로 이젠 정회

원 200명과 준회원 3,000명으로 구성된 명실공히 대아남 산악회로 성장하였다. 그간 방방곡곡 명산이란 명산은 모두 다녔고 이젠 우리나라에 있는 산은 거의 아남 산악회가 정복하여 그간 산악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였나 말해 주는 듯하다.

금년 3월에는 월출산(전남 영양군 소재)을 등반했다. 해발 809m의 구정봉을 주봉으로 하여 기암 괴석과 바위봉들이 솟아 마치 창검을 세운 듯 산행에 두려움을 주는 듯 하다. 이산은 신라때는 월나막, 고려때는 월생산이라 하였으며, 달과는 떨어질 수 없으며 많은 시인과 명인들이 산과 달을 노래했었다.

또 구정봉 아래는 동석이 있어 신령스러운 바위라 일컬어오는데 아마 영암이란 고을 이름도 여기서 기인된 듯하다. 산세도 수려할 뿐 아니라 산기슭에 도갑사, 무위사, 천황사 등의 명찰 고적과 아울러 산 북쪽에 용추폭포, 남해에 금릉 경포대, 동으로는 구절폭포 등의 명소가 산재해 있고 남쪽 계곡은 붉은 동백과 더불어 남방의 정취를 풍겨준다.

그리고 1930년 2월에 이산의 북쪽에서 마애석불이 발견되어 학계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동서남북 어느 한 곳도 그 땅 지나칠 수 없는 곳, 험하고 힘든 코스이

□ 한국컴퓨터

- 변경일 : 1986년 4월 22일
- 변경후 주소 : 서울 성동구 능동 776-2 동명빌딩 301호

• 변경전 대표자 : 崔貞姬

□ 石南産業(株)

- 변경일 : 1986년 4월 23일
- 변경후 대표자 : 姜范奭

□ (株) 켜스

- 변경일 : 1986년 4월 23일
- 변경후 상호 : (株) 켜스
- 변경전 상호 : 韓國商易컴퓨터(株)
- 변경후 대표자 : 洪承采
- 변경전 대표자 : 洪國泰

나 우리 회원들은 한사람도 나오자 없이 힘든 등반 코스를 무사히 통과했다. 1박 2일의 코스로 하여 3월 8일 저녁 10시에 회사 정문에서 버스로 천황사로 향했다.

3월 9일 새벽 3시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신성대로 향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배낭을 풀려는 순간 흰구름 안개 속에서 불쑥 솟아 오르는 태양은 경탄과 환호를 뛰어 넘어 잠시 회원들이 부동 자세가 되어 누가 먼저 환호를 지르나 할 정도로 그 경치란 황홀할 정도였다. 구름다리를 지나고 용주폭포를 거쳐 천황봉을 넘었다.

그리고 9개의 우물바위가 있다는 구정봉을 타고 도갑사에 도착하면서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를 정도였다. 어렵게 끝난 등반이기에 아쉬운 정을 남기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월 1회 등반이지만 항상 새롭고 기대에 부푼 것은 정녕 산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하는 우리들 마음이 모두 자연을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이라. 10여년을 사랑하는 산악회지만 어려움도 많았고 또한 즐거움도 많았다.

'86년도 임원을 개편하여 부회장에 이광남 사우, 남자 총무에 양한석 사우, 여자 총무에 전미화양, 레크레이션 담당 김길순양으로 구성하여 우리 산악회우들의 각오가 대



안개가 자욱한 월출산 정상에서 맞은 일출은 회원들의 넋을 온통 빼놓았다.

단하다.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아남산악회가 무한한 발전이 있도록 산악회우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 일하는 우리 여직원들이 중심으로된 산악회이기에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도 더 자연을 사랑하며 참되고 진실된 마음 자세로 직장 생활에 임하며, 자연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일하는 터전을 아낀다면 우리 아남의 발전과 더불어 산악회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것을 확신한다.